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 '성북동천'이 발행하는 마을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2018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매체형 분야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간행되었습니다.

성북동 마을 잡지 12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차례

- 3p **이름**
성북동의 숨은 보물 찾기 / 최성수
- 6p **성북동 구의원 간담회 현장취재기**
특집기획 ① / 황선영
- 12p **주민참여 공공미술, 뭘까?**
특집기획 ② / 김기민
- 20p **우리 동네 선잠단 이야기**
성북동 문화재 탐방 / 전서령
- 26p **성북동에는 왜 대사관저들이 많을까?**
성북동 마을여행 / 백외준
- 34p **너의 남남버거**
우리 동네 가게를 소개합니다 ① / 박선윤, 박정배
- 38p **홀러 홀러갑니다 <꽃핍>**
우리 동네 가게를 소개합니다 ② / 신창희
- 45p **문인들의 커뮤니티로서의 성북구**
우리 동네 작가를 소개합니다 / 김준현

- 52p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이들을 만나다**
우리 동네 전시를 소개합니다 / 김소원
- 60p **구민과 걸음을 함께 하는 성북미술협회**
우리 동네 NGO NPO / 김성진
- 64p **호탕한 웃음, 끊임없는 열정**
우리 동네 아트살롱 / 인터뷰이_연출가 권호성
- 70p **나는 동구여중 학부모입니다**
동네 이슈 / 김경아
- 77p **성북동 <햇살내리는 어린이집>**
주민 기고 / 윤혜정
- 84p **여러분! 12호가 나왔습니다.**
편집 후기 / 장영철
- 86p **성북동을 사랑하는 분들을 모십니다**
회원 모집 / 편집부



성북동의 숨은 보물찾기

이름

최성수

우일사 양복점 이웃에는 만리장성이 있다. 입학식이나 졸업식이 끝나면 이층 중국집 구석방에서 먹던 짜장면은 빛 바랜 명자국 처럼 어두웠다. 만리장성 뒷쪽으로는 순대와 푸성귀 생선을 팔던 손바닥만한 성북시장이 자리잡고 있었다. 왁자지껄하던 시장 사람들은 다 성북동 이웃들이었다. 시장 끝에는 성암탕, 건너편 남대문 사장¹⁾에는 우리 큰아이 돌사진이 오래 걸려 있었다. 사진관 이웃 경일 안경원에서 나는 첫 안경을 해 쓰고 중학생이 되었다. 골목에 살던 최순우 선생은 몰랐지만, 내 초등학교 친구가 살던 그 두부골목을 지나 나는 혜화동 고개를 넘어 동양서림으로 시집을 사러 가곤 했다. 내가 살던 3번지 골목 입구 심원 찰상회와 심원 미장원을 지나 삼선교까지 걸어 고등학교를 다녔던 시간들

바람부는 세상에 서있는 몇 해 동안

그 이름들은 하나 둘 사라져갔다

나는 무시로 사라진 이름들을 떠올리며 성북동길을 걷는다

우일사, 만리장성, 성북시장, 성암탕, 남대문 사장, 경일 안경원, 두부골목, 심원 찰상회, 심원 미장원...

1) '사장'은 사진관의 옛 표현입니다.



이름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워지고, 지워지다 마침내는 닳아버린 고무신처럼 버려진 성북
동의 이름들

성북동은 지워진 이름들의 숨결로

아득하고 아늑하다

—

최성수는 시인이며 청소년 문학 작가이다. 그동안 시집 〈장다리꽃 같은 우리
아이들〉, 〈작은 바람 하나로 시작된 우리 사랑은〉, 〈천 년 전 같은 오늘 하루〉,
〈꽃, 꽃잎〉을 냈으며, 청소년 소설 〈비에 젖은 종이 비행기〉, 〈꽃비〉, 〈무지개 너
머 1,230마일〉을 내기도 했다. 성북동에 50년을 살다 지금은 고향인 강원도 안
흥 보리소골로 귀향하여 고향과 성북동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
히 성북동이 사람들의 행복한 꿈을 담아내는 터전이기를 꿈꾸고 있다. 본지의
편집위원이자 성북동천의 고문이기도 하다.



특집기획 ①

〈성북동 지역 구의원 간담회〉현장취재기

- 민선7기 구의원과 성북동 풀뿌리 주민모임이 함께 하는 간담회

황선영

2018년 8월 18일 토요일, 성북동 카페 디터틀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성북동 지역 구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유권자가 선출한 구의원,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부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성북동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단체인 ‘성북동천’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되어 성북동 주민들을 대의하는 구의원을 초대해 열리는 간담회 자리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 단체가 그간의 지역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의원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흔하지 않은 만큼, 구의원과 주민들 쌍방의 참여가 무척 기대가 되는 자리가 아닐 수 없었다. 주 최 측에서는 성북구의회 ‘가’선거구 의원인 임태근(더불어민주당/민선

7기 성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의원과 한건희(자유한국당/도시계획위원회) 의원에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임태근 의원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한건희 의원이 참석하여 주민들과의 이야기 자리를 갖게 되었다.

성북동천 김기민 총무는 “오늘 행사는 6·13 지방 선거 이후 구의원과 주민들이 만나는 시간으로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성북동 주민을 대의하게 된 구의원들에게는 공약과 의정활동 방향과 각오를 말하는 시간이, 주민들에게는 앞으로의 의정활동 목표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주민과의 소통 채널 및 만남의 장소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달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 제안 단체인 성북동천의 김철우 대표는 “이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갖는 자리라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더 나은 자리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인사말에서 밝혔다.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지역의 대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를 맡은 성북마을살이연구회 홍수만 대표는 먼저 자리에 참석한 한건희 의원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당선자 중 최연소 의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한건희 의원(34)은 “초선 의원이자 청년 의원인 만큼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원래 미술을 전공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진, 특히 영상 촬영 쪽에 관심을 가져서 영화 작업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학 후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현실에서 겪는 좌절이 있었어요. 취업도 그렇고, 그러다가 국회의원 선거 때 비서로 추천을 받아, 권신일

후보의 수행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게 3~4년 전입니다. 비서관으로 시작해서 홀로서기를 하게 된 건, 주민들과 만나면서 저 스스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를 만나면 주민들께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살면서 겪는 불편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구의원은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한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구의원 만나기조차 쉽지 않은 이 현실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한건희 의원은 성북동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닌 이 동네 토박이라고 한다. 성북에 애정을 갖고 잘 알고 있다는 장점과 아직 초선이고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면도 솔직하게 말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간담회 초청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동구여중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모임>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여해 봤는데, 아무래도 주목을 받게 되고 부담이 없지는 않더라구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직장인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처럼 이런 만남의 자리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청년 의원으로서 성북에 어떤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북동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기엔 어렵죠. 자립할 수 있는 바탕, 즉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구 비례상으로도 노령화가 심하고 청년들은 다 외지로 나가고 있죠. 저는 청년 문제의 해결은 일자리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죠.”



성북에서 살아오면서, 혹은 주민들과 만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해결 과제가 있나요?

“현재로는 북정마을 재개발이 가장 큰 이슈일 것입니다. 속칭 ‘미아리 텍사스’ 개발과 연동된 개발계획인데, 각종 인허가 문제와 공동 재개발 구역 및 개인 개발 구역이 섞여 있다는 복잡함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되긴 어려울 거예요. 시간을 들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재개발에는 명과 암이 있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주민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게 성북동이기도 하구요. 재개발 문제는 찬반 의견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인으로서 건드리기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 소속 상임위가 도시계획위원회인데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명확한 실태 조사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 분권에서 구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북구의 1년 예산이 6천억 원 가량 됩니다. 그 중에 고정 예산을 빼고 재량 예산이 3백억 원 정도인데요, 인구 42만의 자치구를 3백억 원

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예산의 분배가 잘 되는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예산이 새지 않는지 감시하는 일이 구의원이 할 일 중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지역의 풀뿌리 의원들과 주민들이 더 많은 소통의 자리를 가지기 위한 방법도 논의되었다.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나 토론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는데 지방 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가, 구의회 안에서 일어나는 쟁점 상황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마련했으면 한다”는 주민의 의견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좀 더 쉬워지고 많아졌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는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초선들은 스스로 자리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제약도 있는 만큼 주민들이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건희 의원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점점 편해졌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소통의 자리에 많이 불러 달라”고 부탁했다. “구의회에서 받는 초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리에서 배운 게 더 많습니다”라고 젊은 의원답게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의의는 주민들이 구의원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실현하였으며, 딱딱한 형식 대신 자유롭고 격의 없는 토론이 오갈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좋은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비록 1명의 구의원만이 참여한 현실적 한계로 각 의원의 정책 의지와 구상을 들어보고 비교해 볼 기회를 가지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자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주민들과 기초의회의 벽을 허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의 뜻을 대의할

지역의 일꾼들을 뽑은 경험이 일곱 번에 달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우리 동네 구의원이 누군지, 시의원이 누군지 얼굴조차 알지 못하며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이다. 주민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행정 기관을 통해 전달되어 공정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들을 대의할 지역의 일꾼들을 제대로 뽑고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주민 단체가 직접 나서서 구의원 간담회를 주최한다는 이번 기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 더 많은 주민과 지방의회 구성원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

황선영은 삼십육점육도씨 의료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이자 성북마을기자단 소속이다. 지역과 공동체에 대한 소식을 글로 쓰고 있다.



특집기획 ②

주민참여 공공미술, 뭘까?

김기민

‘주민참여’라는 말도, ‘공공미술’이란 말도 그 어느 것도 쉽지 않다. ‘참여’나 ‘공공’은 일반명사이고 흔히 사용되는 용어지만 ‘주민참여’는 지난 몇 년간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그렇게 정책과 사업의 언어로 사용되고 유통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는 사람만 아는 낯설거나 생소한 개념이다. ‘공공미술’은 미술 혹은 예술을 일상적으로 충분히 경험하거나, 혹은 ‘미술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기본교육 과정이나 이후의 삶에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시민에게는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다. 더욱이 공공미술과 관련된 거버넌스에 참여할 기회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일반 시

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개념들에 대해 시민 개개인이 생각하는 상(像)도 불분명하거나 합의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참여’나 ‘공공’이란 표현은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할 개념이자 용어라고 생각한다. 지난 4월 ‘주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표방하며 성북동 거리갤러리 개관기념전시 <숲>이 시작된 이래 매일 출퇴근길에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작품을 지켜보며 어딘가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내게 남는 이유다.

공적 자산, 공유지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회적으로 공공미술의 정의를 이해하고 그것에 공공장소나 국가·지방정부 재정과 같은 공적 자원을 투입하거나 배분하는 방식은 기존에는 행정기관과 관료, 전문가 중심의 일방적이고 독점적 체계였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화 이후 실질적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이기적이고 무질서해 보이는 시민들의 모습이 오히려 인간의 본질적·선천적 악덕에만 기인한다고 보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철저한 학습과 훈련이 필요한 사회운영 체계이고, 공적 자원의 배분은 꾸준한 경험들 통해 단련해야 할 영역이다. 한국 사회는 그 동안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체제가 헌정을 중단시키고 지방자치를 고사시키면서 이 배움과 연습의 과정을 허용하지 않아왔고, 지금의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가 안착한 지 불과 30여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각자의 인식과 수용에 기반한 혼란에 대해 나는 그럴만한 일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방식이고, 더 이상은 아니다. 적어도 2018년 현재 지방자치와 분권, 민관협치를 이야기하는 시대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공공장소, 재정과 같은 공적 자본 혹은 공유지는 시민 모두의 자산이고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정부, 행정기관은 시민 모두의 공적 소유라는 개념의 법적 소유형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을 통해 소유권을 나누어 명시해둔 것일 뿐 그것의 원천적 소유권은 시민들에게 있다. 공공기관은 단지 그것을 맡아 어느 일방의 독점이나 점유를 통해 자원의 효과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운영할 책임을 법에 의해 부여받아 그 역할을 다하는 곳일 뿐이다. 단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어느 기관이라고 해서, 그 기관에 속한 국가 또는 지방 예산이라고 해서 그 기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식 있고 선량한 마름이라면 제 주인의 뜻을 살피고 헤아리는 것을 가장 으뜸 원칙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성북동 거리갤러리와 같이 지역에 존재하는 국유지나 사유지·구유지 등의 국공유지는 그 활용과 사용에 있어 지역사회 차원의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공간이고, 공론을 거쳐 그 사용 방향과 방식을 합의하는 과정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공간이다. 사업추진의 법적,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과 절차만으로는 그 공간의 사용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나누기 어렵다. 무엇보다 그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살아가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접 결정하거나, 최소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제대로 된 의견을 내본 적 없고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제도로 지역사회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기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결국 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된다. 충분히 숙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다.

그 공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소비되고 사용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소유와 이용의 방식에 대해 구성원들이 차근차근 논의하고 원칙을 세워나가는 과정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입법·행정 기관은

시민들이 그 소중한 배움의 경험과 합의의 과정을 배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누가 참여의 방식을 결정하고 공공미술의 정의를 규정하는가?

공히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고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유지에서 ‘주민참여’와 ‘공공미술’을 표방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지난 4월 10일부터 2019년 4월 7일까지 1년의 여정으로 전시되는 지금, 무엇이 공공미술이고 어떻게 주민참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구립미술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시 소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왜 이 공간에 주민참여 공공미술프로젝트가 기획되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전시 소개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령 이 프로젝트가 제안하는 ‘주민참여’의 방식은 누가 결정했을까? 그것이 주민참여로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일까? 무엇이 주민참여일까? 작품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면 주민참여인 것인지, 기획 과정에도 참여해야 주민참여인 것인지 그 어떤 원칙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주민참여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참여할 주민을 섭외하여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공공미술 또한 마찬가지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작품은 공공미술인가? 공적 재원이 투입되면 공공미술인가? 공공기관이 직접 추진하면 공공미술인가? 공공미술에 대해 세계적 차원의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가나 지방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공공미술의 기준, 혹은 지역사회가 생각하는 공공미술의 상 정도는 정립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시민 모두가 미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도 자신이 살고 있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배움을 통해서든,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든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동참하고 그 원칙에



국순교복자상직순도
복자사랑 피정의

따라 역할을 나눠 일이 추진되고 프로젝트가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공공미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중략) 한편, 이번 개관기념전시와 함께 거리갤러리 곳곳에 세워진 벽돌 전시공간에는 최정화와 성북동 주민들이 함께하는 〈주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이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성북동 내 성북초등학교,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덕수교회 늘푸른대학, 북정마을 할머니경로당 등 다양한 연령과 성격의 단체 수백 명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각 단체들은 최정화 작가의 대표작인 〈알케미(Alchemy 연금술)〉와 같이 형형색색 빛나는 플라스틱 컵과 그릇, 작은 구슬들을 와이어로 길게 엮은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지속될 주민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성북구의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공공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거리갤러리의 정체성과 의미를 형성하고자 한다.》

- 출처 성북구립미술관 홈페이지

시민들에게는 이러한 판단과 결정이 내려지게 된 작동 원리와 구조, 배경에 대해 알고 이해할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 그것은 성북구청과 같은 행정기관, 성북구립미술관과 같은 전담기관,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모아서 대의하고 전달할 책임이 있는 구의회와 같은 입법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점검해야 할 몫이다. 어느 일방의 책임이 아니며, 누가 누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도 아니다. 최소한 이것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마도 이런 궁금증과 문제제기는 시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학습과 훈련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공동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근거가 되는 원칙과 규정을 확인하며 얼마나 많은 공적 자원이 사용되었는지 또 사용해야할지를 파악하는 과정은 이미 자원과 자본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전문가에 비해 일반 시민들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민들에겐 그 어떤 것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바로 쪽수이다. 공공성에 대한 책임있는 인식을 갖춘 많은 시민들이 모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 공공기관과 전문가그룹의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시민들은 지금껏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공유지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
김기민은 성북동천 총무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에서의 민주주의란 뭘까 고민한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역사회 활동 생태계 조성'과 '활동기반 강화'라는 미션으로 추진 중인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에서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다. 민주주의, 시민권, 자유, 그리고 자치에 대해 요즘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성북동 문화재 탐방

우리 동네 선잠단 이야기

- 성북선잠박물관

전서령

“똑똑, 선잠이 뭐예요?”

박물관에 오시는 관람객 대부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매일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잠이라는 것은 다소 생소합니다. 선잠은 처음으로 누에를 쳐서 비단을 짜고 옷을 해 입었다는 양잠의 신, 서릉씨(西陵氏)를 의미합니다. 그 서릉씨를 누에 농사의 신-선잠(先蠶)으로 받들어 모시고 한 해의 풍요와 안정을 기원했던 제사가 바로 선잠제입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는 조선시대 서울의 유적 ‘사적 제83호 선잠단지’가 600여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며 의생활을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 문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선잠제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시대의 선잠단은 개경에 있었고, 지금 성북동에 위치한 선잠단은 세종실록 지리지 등 여러 문헌들의 기록을 종합해 보았을 때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북선잠박물관은 이러한 선잠단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지어진 성북구 최초 공립박물관으로 2018년 4월 10일 개관했습니다. 씨실과 날실이 교차하는 모습을 모던하게 형상화한 외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3개의 전시실과 개방형 수장고를 갖추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박물관 수장고의 내부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발상의 전환이 빛나는 공간입니다. 옥상 하늘정원은 한양도성과 성



복동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성북동 대부분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흔치 않은 경관을 가진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은 선잠제, 선잠단의 어제와 오늘을 담았습니다. 농사와 누에치기가 사회 발전의 큰 동력이었던 사회에서 선잠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왕은 선잠단에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고, 왕비는 궁에서 몸소 모범을 보이는 예, 친잠례(親蠶禮)를 행했습니다.

3층 기획전시실은 선잠제와 연관된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거나 조선시대 의복문화와 관련된 특별전시를 위한 공간입니다. 10월 3일까지 개관특별전시인 <비단실의 예술 매듭장 김은영展>을 진행합니다. 후속 전시로 <규방에서 피어난 자수展>를 개최하여 아름답고 따뜻한 자수 작품을 선보임과 동시에 우리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들의 노동과 삶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의생활을 중요하게 여겼던 선조의 지혜가 성북선잠박물관의 시작이라면 선잠에 깃든 문화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발휘해야 할 다음 세대는 성북선잠박물관의 미래입니다. 때문에 성북선잠박물관은 어린이,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춘백세박물관>, <소원을 담은 노리개>, <선잠어린이박물관학교>, <선잠역사문화교실>, <선잠으로 여름(겨울)나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성북선잠박물관은 선잠제의 음악, 음식, 복식, 왕비의 친잠 그리고 비단과 연관된 침선, 자수, 매듭 등으로 다양한 테마의 기획전시를 이어가고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 진행함으로써 선잠단과 선잠제의 복원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동네 박물관으로서 성북구 주민들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자주 방문해주시면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성북선잠박물관 직원들이 주민들께 드리는 한마디

오민주 : 저는 선잠박물관에서 전시와 유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성북동 주민들의 일상 속에 함께했던 선잠단이 지금은 발굴로 인하여 굳게 닫혀있지만, 곧 선잠단도 복원되고 선잠박물관에서도 흥미로운 전시를 진행하여 생생한 문화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북구 주민들께서 좋은 문화콘텐츠를 가깝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친근한 동네 박물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길.

전서령 : 저는 선잠박물관에서 교육을 맡고 있고, 관람객들을 위해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상을 넓히고 더욱 재미있는 교육과 체험으로 주민 분들에게 열린 공간이자 평생교육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선잠박물관에 자주 놀러 오시고 교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유라 : ‘박물관은 어렵다’, ‘박물관은 재미없다’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성북선잠박물관으로 오세요. 선잠에 대해 쉽게 배우고 함께 소통하는 즐거운 공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지수 : 선잠박물관은 양잠을 처음 시작한 선잠, 서릉씨와 그에 제사를 지내던 선잠단을 소개하는 박물관입니다. 어렵지만 한 박물관이 아니라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위해 오작교를 놓았던 까치와 까마귀처럼 좋은 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잠과 주민 분들의 오작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현 : 성북선잠박물관에서는 재미있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전시와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박물관인 선잠박물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지다인 : 성북선잠박물관은 500년의 역사를 담은 성북동의 자랑입니다. 선잠박물관은 언제나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발걸음으로 선잠박물관의 빛을 밝혀주세요! 

-
전서령은 역사에 관심이 많아 사학과에서 역사를 배우고, 박물관에서 근무하며 교육에 눈을 떠 박물관교육학을 전공하였다. 국립춘천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을 거쳐 성북선잠박물관 개관에 참여하였다. 현재 성북선잠박물관 학예연구사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성북동 마을여행

성북동에는 왜 대사관저들이 많을까?

- 대사관로 탐방기

백외준

성북동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성북로. 평소 이 길 양옆 가로등 밑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태극기와 함께 걸려 있다. 이들 세계 국기의 행렬은 도로 초입의 플라타너스 가로수와 함께 성북로의 불박이 경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 국기들은 현재 성북동에 소재한 주한 외국 대사관저들의 국기들로, 성북구청이 한국과 이들 나라와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내걸고 있다. 때때로 성북동에서 열리는 축제나 전시의 홍보 배너를 내거는 기간을 제외하면 성북로는 1년 내내 세계 국기 전시장이 된다. 국기들의 행렬은 성북로의 끝 1111번 버스회차 지점 부근에 있는 우정의 공원까지 이어지는데, 2007년에 조성된

이 공원 역시 이들 국가와의 우호 증진을 위해 성북구가 조성한 장소이다. 그밖에 성북구청은 매년 개최하는 라틴아메리카 축제, 아프리카 축제, 유러피안 축제 등 세계 문화 축제와 대사관로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북동 소재 주한 대사관저 및 성북동 거주 외국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삼아 역사문화지구 성북동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성북동은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 외국 공관지역이다. 성북동의 주한 대사관저들은 대체로 삼청터널에서 정릉으로 이어지는 대사관로 주변 330번지 일대와 길상사와 성락원 주변 언덕 지대에 흩어져 있다. 대사관저는 주한 외국 대사와 그 가족들의 사적 거주 공간이면서, 각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크고 작은 외교 관련 행사들을 위한 공적 기능을 가진 특별한 장소이다. 2018년 10월 현재 성북동에는 유럽연합 포함 42개국의 대사관저와 2개국(네팔, 앙골라)의 대사관이 있다. 그밖에 각국 외교관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들이 성북동에는 많다.

성북동이 주한 대사관저 부지로 주목 받은 것은 1970년대부터다. 1972년 일본 대사관저가 지금의 자리에 신축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1976년 서독(현 독일) 대사관저가 들어왔다. 이후로 꾸준히 각국의 대사관저들이 들어와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190개국이니까 그 공관들 중 약 22%가 성북동에 몰려 있는 셈이다. 왜 성북동에 이렇게 많은 대사관저들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그 과정은 1960년대 한국 현대사와 맞물려 있는 서울의 도시 변천과 깊은 연관이 있다.

6·25전쟁 이후 서울에는 인구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었다. 서울은 극심

한 주택난에 봉착했고 주택 건설은 국가 차원의 문제로 떠올랐다. 해결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대대적인 주택건설정책을 수립하고 서울 곳곳에서 택지조성사업을 펼쳤다. 이러한 주거 확장 사업 속에는 외국인 대상 임대 주택 건설 사업, 즉 외인주택단지 건설사업도 끼여 있었다. 1950년대에 서울에는 각국 외교관, 주한미군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 등 수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거주지는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주택 수와 낙후된 주거 환경 속에서 주한 외국인들 역시 안정된 집을 찾기 어려웠다. 이승만 정부는 주한 외국인들의 주거 문제를 외교·안보상 국익 확보를 위한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기존 외국인 거주지였던 이태원과 한남동에 새로이 외인주택단지를 건설해 분양했다.

1960년대 중반 서울에 사는 주한 외국인의 수는 크게 늘었다.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외교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국제 교류가 잦아진 까닭이다. 외국인을 위한 더 많은 주택 건설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외인아파트를 지어 주택공급물량을 대규모로 늘리는 한편 기존에 대한주택공사가 도맡아 추진했던 외인 주택 건설 사업을 일부 민간 기업에 맡겨 시행토록 하였다.¹⁾ 서울시는 1967년 용산구를 벗어나 성북구 성북동에 외인주택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대교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교산업은 정부의 보증 아래 자금 29억 원을 대출 받아 성북동 산 25번지 일대 약 10만 평의 국유지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2동, 도합 3백 50동의 외인용 주택 건설을 시작했다. 1967년 6월말에 착공한 주택 단지는 1969년 말 완공을 보았다.²⁾ 이것이 오늘날 성북동 330번지 ‘대교단지’라고 부르는 주택단지와 성북아파트다. 비슷한 시기 대교단지와 가까운 곳에서는 좀 더 작은 규모의 외인주택단지가 건설되었다. 오늘날 ‘성락원마을’이라 부르는 지역이다. 당시 제동산업이 소유한 약 3만평의 대지에 미국의 체이스-맨해튼사,

BOA은행, 칼텍스 석유회사 등 10여 개 외국 회사원 주택 14동이 건설되었다. 소요 자금은 제동산업과 입주하는 외국회사 간 직접 계약으로 조달되었다.³⁾

성북동 외인주택단지 건설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중반 외인주택이 들어서는 곳 주변으로는 작은 산동네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대교산업이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대지만 해도 계획공원인 성북공원에 인접하고 경치가 좋은 풍치지구여서 서울에서 보기 드문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지역이었다. 주민들은 숲을 훼손하는 건설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였다. 하지만 서울시와 정부는 성북동에 대규모 외인주택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연간 2백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보도 자료를 내놓으면서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⁴⁾ 인근 성락원마을을 둘러싸고도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 간에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원래 시유지였던 땅이 개인 소유지로 편입되면서 주민들의 이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었다.⁵⁾

대교산업은 삼청터널 공사도 맡아서 시행했다. 성북동은 도심과 직선거리상 가깝다는 위치상의 장점이 있지만 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외교관들에게는 좁은 성북로를 빠져나와 혜화로터리와 을곡로를 통해 도심에 진입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교통 여건은 좋지 않을 터였다. 당장에 성북동 외인주택의 수익성 확보가 문제로 떠올랐다. 북악산을 뚫어 삼청동과 성북동을 잇는 터널의 개통은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대안이었다. 1970년 12월 개통한 삼청터널은 성북동에서 시청까지 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게 해 주었다.⁶⁾

1970년대 초 삼청터널의 개통으로 외인주택단지의 제반 여건이 갖추



어짐에 따라 기존 한남동과 이태원 등지에 있던 대사관저들 중 일부가 속속 성북동으로 이전하였다. 새롭게 한국과 수교를 맺은 국가들도 대사관저를 성북동에 짓거나 빌려서 들어왔다. 1972년 일본대사관저가 330-180번지로 옮겨오면서 대사관저로서는 처음 성북동에 발을 들였다. 1976년 10월에는 용산구 동빙고동에 있던 서독 대사관저가 330-198번지 새로 지은 대사관저로 옮겨왔다.⁷⁾ 이후 호주, 캐나다, 터키, 스웨덴 등 각국 대사관저가 차례로 성북동에 터를 잡았다. 이와 함께 내국인들, 그중에서도 한국의 우수 재벌기업의 회장들, 재력가들도 성북동에 모여들었다. 조용한 길과 맑은 공기. 거기에는 이웃에 대사관저가 있기 때문에 보안 걱정도 덜 수 있으니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이었다. 그리하여 성북동 외국인주택단지는 1980년을 전후한 시기, 신흥 고급주택지로 변모했고 ‘부촌’으로 이름이 났다.

성북동 소재 주한대사관저 현황 (2018년 10월 현재)

아시아(15개국) : 중국, 일본, 네팔(대사관),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요르단,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프가니스탄

유럽(11개국) :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 터키, 그리스, 아일랜드, 스웨덴, 폴란드, 노르웨이, 유럽연합

아프리카(10개국) : 잠비아, 나이지리아, 튀니지, 탄자니아,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에티오피아, 알제리, 앙골라(대사관)

라틴아메리카(4개국) :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브라질

오세아니아(2개국) : 호주, 파푸아뉴기니

2018년 10월 현재 성북동에 있는 42개국 대사관저와 대사관의 목록은 위 표와 같다. 대사관저는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국제협약 상 보호를 받는다. 내국인은 허가 없이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1) 제22조 1항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조문에 따른 것이다. 원칙은 삼엄하지만, 대사관저의 대문 앞까지 가보는 것은 자유다. 담장 안 낮은 국기가 펄럭이고, 대문 옆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문장이 내걸려 있다. 그것은 세계로 열린 작은 창이다. 그러나 이들 대사관저가 분포해 있는 대사관로를 산책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예 인도가 없는데다 삼청터널을 오가는 차량들은 사람이 걷고 있건 말건 썩썩 달린다. 서울에 이렇게 위험하고 삭막한 주택가가 또 있을까 싶다. 1967년 처음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에는 주택뿐 아니라 학교, 유치원, 오락장, 놀이터, 식료품점, 수영장이 들어선다고도 보도됐다.⁸⁾ 그러나 이 중에서 현재 있는 것은 작은 슈퍼마켓 단 한 곳뿐이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할까? 고급주택들로 가득 차 있지만 부족한 것이 더 많은 동네. 조성 계획과 달리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1967년 공사 이후 계획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내고 싶다. ㉠

백외준은 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이다. 1981년 광양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는 역사학을 공부했다. 2013년부터 성북문화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동료들과 정릉, 미아리고개, 성북동, 보문동, 안암동을 주제로 한 책들을 펴냈다.

- 1) 임형선, 「1960, 70년대 서울 外人아파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석사학위논문, 2016, 29쪽.
- 2) 『동아일보』 1967. 6. 26. 3) 『매일경제』 1967. 7. 7.
- 4) 『동아일보』 1967. 6. 26. 5) 『경향신문』 1967. 12. 20.
- 6) 『경향신문』 1970. 12. 30. 7) 『동아일보』 1976. 10. 13.
- 8) 『동아일보』 1967. 5. 1.



우리 동네 가게를 소개합니다 ①

너의 남남버거

박선윤, 박정배

안녕하세요. 성북동에 위치한 수제버거집, '너의 남남버거'입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성북동에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거리도 예쁘고 문화 축제도 많고, 골목 구석구석 생기는 공방과 가게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자리 잡은 모습이 좋았습니다.

성북동은 저희한테는 추억이 많은 익숙한 동네입니다. 오픈을 하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새로 생기는 가게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동네에 이런 가게가 생겨서 참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가게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미술을 전공해서 그런지 간판이며 내부 디자인을 하나하나 고르고 선택하며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공간 자체를 전시준비 하는 것과 같이 해나갔어요. 가게를 열기 전에 그려보았던 가게 내부, 외부 그림이 인테리어를 완성하고 보니 정말로 비슷하더라고요. 생각했던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멋지게 나와서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가게 내부에는 어떤 색을 칠할지, 외부에는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어느 부분을 살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고 채워가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완성되고 나니 굉장히 뿌듯하고 기쁩니다.

가게 이름이 귀엽고 재밌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사실 처음 가게 이름을 정할 때는 '남남쩍쩍'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남남쩍쩍버거" 결국 찹찹은 빼자고 정했죠. 남남버거 앞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 한참 고민하던 때에 나의 남남버거 어떨까? 하다가 '나의'보다 '너의'가 편지 같으면서도 시적인 느낌이 들어 <너의 남남버거>라는 이

름으로 정했습니다.

핫한 수제버거 맛집

수제버거를 처음 먹었을 때 부드러운 빵과 입안에서 감기는 소고기 패티, 치즈, 토마토, 양파들이 하나하나 모여 조화로운 맛이 느껴졌어요. 그 맛에 반해 수제버거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죠. 간편히 먹을 수 있지만 한끼 식사가 될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버거. 수제버거를 먹어보지 못한 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맛을 꼭 한번 맛보여 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천천히 알려지는 가게가 되자, 좋은 재료와 정성스런 음식을 만들면 차차 사람들이 조금씩 찾아와 주실 것이다, 이런 각오로 가게를 열었어요. 오픈 때부터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건강한 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찾아와주셔서 매번 신기하고 감사해요. 저희가 겨울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때가 한참 추워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 겨울을 잘 견디면 우리 가게도 따뜻한 봄이 오겠지? 봄은 꼭 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이 지금도 생각나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헤쳐나가자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고 항상 정성스런 음식을 만들 거예요. 지금도 부단히 노력중입니다.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겨울에 수도가 언다거나, 폭염에 에어컨에서 습기가 무대 효과처럼 뿜어져 나온다거나 할 때, 저희는 너무 당황했는데 오히려 손님께서 신기하다면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기도 했죠. 손님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가게 창문을 열고 마감하고 있었을 때쯤이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시던 어떤 분이 멈추시더니 “가게가 너무 예뻐요. 분명 잘될 거예요!”라고 응원해주시고 가셨는데 그 말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기대되는 남남버거의 메뉴

아직은 저희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꾸준히 노력중이에요. 메뉴 연구도 여전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더 맛있을까 고민합니다. 손님들께 항상 신선한 재료로 버거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너의 남남버거>는 누구나 편안하게 들러서 먹고 갈 수 있는 가게였으면 해요. 동네의 맛있는 버거집으로요. 🍔

-

박선윤은 미술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다수의 전시와 여러 가지 미술 관련 일을 하며 그림 공부를 하던 중 박정배를 도와 너의남남버거 간판디자인, 내·외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함께 작업했다.

박정배 역시 전공은 동양화였다. 요리에 매력에 빠져 한식 레스토랑에서 기본을 깔고 닦으며 요리를 배웠다. 그러던 중 본인의 가게를 차리는 꿈을 꾸었고, 긴 시간을 준비해 성북동에 작은 수제버거집을 열었다.



우리 동네 가게를 소개합니다 ②
홀러 홀러갑니다 <꽃핍>

신창희

지난해 늦가을, 물이 얼기 전 물처럼 흐르려다 머무르게 된 곳이 성북동이었습니다. 벌써 사계절을 경험합니다. 어디서 머물게 되어도 잘 스며들기를 바라며, 가지고 다니던 짐들을 풀어 놓는 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모든 계절을 지냈을 즈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일, 떠돌이로 이방인이 되는 일을 자처하면서 순수함과 멀어지고,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는 곳이 또 다른 고향이라 여기게 됩니다. 성곽을 따라 흐르던 단풍을 시작으로 깊고 푸른 겨울 밤하늘의 달,

성북동 골짜기사이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봄 향기, 산동네 공원의 시원함을 내어주던 짙푸른 초록의 여름평상, 모든 경험들이 아름답고 고마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성북동은 멋진 새로운 고향입니다. 이제 그 속에 사는 멋진 이들을 만나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내어야 하겠죠. 이웃들과 같이, 성북동에 스며들어 아름답게 살아가며 나누겠습니다. 꽃이 하는 일처럼 말이죠.

꽃의 핍을 이야기하다. <꽃핍>

지나가는 길에도 살짝 꽃을 보게 되기를 바라며, 꽃의 핍을 이야기하는 <꽃핍>입니다. 꽃을 파는 일과 꽃 강의, 정원디자인, 자연소재로 작업을 하는 일을 합니다. 꽃을 팝니다. 꽃을 파는 일은 좀 더 세심하게 사전 주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꽃은 선물입니다. 나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만, 분명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전하고 싶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살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꽃을 디자인하는 강의를 합니다. 꽃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은 오래된 저의 일입니다. 고운 꽃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꽃과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꽃과 살아가는 삶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한 달, 자격증반, 취미반, 플로리스트 과정, 플로리스트마이스트 과정까지 다양합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꽃으로 작업하는 모든 부분들을 교육하면서 자연의 색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만듭니다. 독일 정원사로서 정원을 디자인하고 작은 마당, 화





단, 식물 관리 등 자연의 시간을 디자인하며 가꾸어가는 일을 합니다. 어릴 적 기억의 꽃밭으로 시작해서 정원은 또 다른 자연의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엄마의 텃밭에 있었던 고추, 파, 부추, 상추, 그 사이 있던 봉선화, 채송화, 맨드라미. 저에게 텃밭은 즐거운 꽃밭으로 남아있습니다. 생태정원을 시작으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아름답게,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정원을 디자인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꽃과 만나는 이야기를 펼쳐 놓는 전시도 합니다. 꽃이 주는 많은 것들을 작업을 통해 보여드리는 일은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일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일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꽃입니다. 꽃의 땀을 보는 일이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심은 나무 사이로 바람의 길을 보고, 꽃을 피워낼 비가 오는 날을 기다리며, 흙에게 맞는 돌을 찾아서, 그 사이 씨를 떨어뜨려 두는 일이죠. 그러다 보면, 꽃에게서 춤추는 법을 배우거나, 물 마시는 소리를 듣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꽃에게 사소한 정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꽃땀>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꽃땀>에서 마주치길 바랍니다. 🌸

-
신창희는 플로리스트마이스터·가든디자이너로 성북동에서 <꽃땀>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APEC에서 꽃디자인을 맡았으며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플라워디자인 강의를 했다.



우리 동네 작가를 소개합니다
문인들의 커뮤니티로서의 성북구
 - 성북동·정릉동을 중심으로 ②

김준현

성북구의 문인. 그들의 일상적 삶, 그리고 학교

지난 11호에 이어서, ‘문인들의 커뮤니티로서의 성북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볼까 합니다. 지난 호에서는 ‘거주사실’로서 지역 문인들을 관가름해서 일별하고 연구하는 흐름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문인 개인의 활동 뿐 아니라 문인들이 서로 교류하는 양상을 주목하고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성북구의 문학과 문인’들을 더욱 풍성하게 재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가 되었지요.

이번에는 문인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져 봅시다. 문인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구별해서 보아야 할 특별하고 예외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들 자신도 우리들, 그리고 이웃들과 같이 일상적인 삶을 누리며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했던, 한 명의 보통사람으로 보아야 할 존재일까요?

이 질문을 보는 독자는, 아마 ‘별 회한한 걸 다 묻는다. 당연히 특별한 점도 있고, 보통 사람들처럼 살던 측면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지요. 문인들 개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도 사람만큼 평범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고, 또 예술가만큼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지점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인·예술가를 연구하고 살피는 경우에는, 그들의 ‘평범한 면’보다는 ‘특별한 면’이 훨씬 더 강조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들을 예외적인 존재로 접근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남달랐는가. 그리고 얼마나 지사적으로, 혹은 예술가적으로 살았는가를 조명하는 데에만 주력했던 셈이지요.

하지만 지역내러티브가 발전하고, 지역과 문인들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관점들이 생기면서는 문인들이 영위했던 삶의 일상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조건이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주민들의 삶이 구성되지요. 마찬가지로 문인들의 삶도 이런 조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문인’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셈이지요. 지역내러티브에서는 문인들 역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이런 훌륭한 문인이 살았던 우리 고장이 자랑스럽다’고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장의 특성이 이런 훌륭한 문인들을 길러내고, 또 모아들었다’고 접근하는 것이 지역 문인 연구의 추세라고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성북구에는 왜 문인들이 많이 살았던 걸까요?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흔히 ‘서울에서 종로구 다음으로 문인이 많은’ 동네라고 하지요.

그것은 문인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경제적인 문제와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문인들도 보통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문인들 중 대부분도,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겠지요.

염상섭 선생이 말년에 성북구에 거주했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염상섭 선생은 모두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이광수, 김동인과 함께 초기 현대소설을 대표하는 주요 작가 중 한 명이지요. 하지만 이분의 말년은 꽤 불우했답니다. 여러 문인의 수필이나 증언에서, 염상섭 선생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한 염려가 들어 있습니다. 염상섭 정도의 위치를 가진 문인도, 기본적인 식생활을 어려움 없이 영위할 정도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꽤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글을 쓰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다지 효율적인 직업은 아닙니다. 전업 작가(순전히 글을 쓰는 것만을 직업으로 하는 작가)로 살 수 있는 문인의 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극소수입니다.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 낮에는 회사에 나가고, 밤에는 피로로 내려오는 눈꺼풀을 붙들고 글을 써야 하는 것이 대부분 작가들의 벗어날 수 없는 일상의 굴레였지요.

그럼 문인들이 가졌던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언론인, 즉 신문·잡

지의 기자나 편집자는 예나 지금이나 문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입니다. 염상섭 선생의 작품이 철저하게 사실성을 추구하는 것도, 선생이 신문기자로 오래 생활했던 것과 관련이 깊지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편집이나 번역을 했던 문인들도 많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문인들이, 문인이면서 동시에 언론인·출판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문인들에게 각광받는 직업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각급 학교의 교사·교수, 즉 ‘선생님’입니다. 대단히 많은 분들이 낮에는 스승·교육자, 밤에는 문인으로 살았지요. 종로구에 많은 문인들이 거주했던 것은, 거기에 출판사와 언론사들이 매우 촘촘하게 포진했던 것과 연관이 깊습니다. 같은 이치로, 성북구는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학교로 둘러싸여 있지요. 그 학교에 스승으로 종사했던 문인들이, 성북구의 주민이 되는 것은 지극히 자유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북구가 교육자들의 중요한 주거지가 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는 지금 남아 있는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많은 대학교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실 성북구와 연결해 있는 동소문 바로 안쪽, 즉 혜화동 학교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지금은 의과대학만 남기고 이사를 갔지만 서울대학교 본교도 있었지요. 그러다보니 학교에서 동소문 밖으로 퇴근하여 저녁에 성북구 주민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가는 교육자들이 많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교수들도 성북동에 다수 거주하게 되지요. 인근 성균관대까지 합하면 메머드 급 학교의 교수들이 성북동에 모여들어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성북동에 교육자가 많이 산다’는 이미지는 1950~60년대 대중소설만 봐도 일반 독자들에게 폭넓게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간 서울대학교 말고도, 지금은 사라진 보성고등학교, 서라벌에

술대학교 등이 문인들에게 중요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던 학교들이었습니다. 보성고등학교는 지금의 서울과학고등학교 자리에 있었고, 서라벌 예술대학교는 지금의 돈암동에 위치해 있었지요. 이렇듯 성북구에 많은 학교가 위치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에 사대문 밖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성북구에 젊은 인구가 몰려들어 그 자녀들을 교육할 학교들이 필요해지게 되는 과정을 겪은 사회·문화사적 조건들과 관계가 깊습니다.

결국 성북구와 문인들의 깊은 연관성은 이런 문인들의 직업 선택의 문제로부터도 조명해 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북구의 학교 커뮤니티, 그리고 언론 커뮤니티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북구에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북동의 문학과 관련된 커뮤니티 인프라가 구축되는 데 기여했던 것은 성북동을 옆에 두면서 인문학적 학풍을 강하게 유지했던 고려대학교와 서라벌예술대학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조지훈 선생과 정한숙 선생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초기 기틀을 다진 문인들로, 해방 이후 문단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북초등학교, 홍대부고 근처에 거주하면서, 고려대학교 제자들을 불러서 술잔을 기울이곤 했었다고 합니다. 1950~60년대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을 다녔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두 분 다 애주가였고, 술을 마시는 것 또한 문학을 수련하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지요(조지훈 선생은 「주도 18단계」라는 글을 남기시기도 했지요!). 두 분이 맥 근처 선술집으로 학생들을 불러 술잔을 기울이는 것은 그야말로 다반사라고 할 정도로 일상적인 일이었고, 말년에 건강이 악화되신 조지훈 선생은 학생들을 맥으로 불러서 전공 수업을 진행하셨다고도 합니다. 학교가 위치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 속

한 교육자들의 거주지였다는 사실이 이런 문학 커뮤니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고장에서 직접 목격한 여러 문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에 대한 기억과 증언을 수집하면 더 질감 있는 성북의 문인들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역 문학 연구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는 예상 또한 해볼 수 있지요.

서라벌예술대학교는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문예창작학과’를 만든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 합병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성북구와 문학의 관계를 논할 때 빠져서는 안 될 곳이지요. 김동리, 안수길, 박목월, 박연희, 김용호, 백철, 서정주 등 당시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교수로 재직하거나, 강사로 출강했었습니다. 이들이 ‘문예창작학과’ 학생들과 함께 학교 앞 동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문학 얘기를 나누고 창작을 논하던 것은, 그것 자체로 중요한 성북의 무형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라벌예술대학교에 출강했던 문인들은 주소지가 달라서 1차적인 ‘성북문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지라도, 성북의 문학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훌륭히 ‘성북문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셈이지요.

〈현대문학〉, 〈문장〉, 〈자유문학〉 등 여러 중요 문예지의 필진과 편집자들이 성북동과 정릉동에 거주했다는 것은 지난 호에도 언급했지요.

〈현대문학〉과 〈자유문학〉은 1950년대 문단을 양분했던 거대 문예지였습니다. 서로 문학관도 다르고, 예술원 선거 등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던 적도 있지요. 문학사에서는 〈현대문학〉 계열 문인, 〈자유문학〉 계열 문인이라고 구별해서 부르면서, 이분법적으로 대립했던 문인 집단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호 대립적이었던 두 잡지도, 그 구성원, 즉 참여 문인들의 주거지와 활동지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재구성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되지요. 바로 성북동과 정릉동의 주민들이 태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각각 몸담던 문단의 거점이었던 잡지사에서도 서로에 대한 비판적인 언사를 쏟아내면서도, 밤에는 합승을 하거나 같은 전차를 타고 성북으로 돌아와서 옆 테이블에서 때로는 서로를 외면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말을 걸고 농을 걸기도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던 같은 동네 주민이었던 것이지요. ‘성북’이라는 키워드로 문인들의 삶에 접근하면, 지금까지 문학사에서 이야기했던 문인들의 삶과 업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재구성될 수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문인들의 삶을 정리해서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들이 거주하고 활동했음을 기념하기 위한 ‘지역문학’에서 나아가, ‘지역과 문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학’이나 ‘지역문학사’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때로는 천변에서, 우리와 마주치는 문인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우리가 만나는 문인들의 인간적인 면모,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 이전에,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면모를 우리가 기록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준현은 성신여자대학교 문화내러티브 전공교수이다. 고려대학교에서 현대문학/소설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상허학회 총무이사, 한국여성문학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상허학회 편집위원이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전후 문학 장의 형성과 문예지〉, 〈해방이라는 한국문학의 경계와 이태준〉 등이 있다.



우리 동네 전시를 소개합니다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이들을 만나다

〈성북 문인사 기획전〉

김소원

사람들은 ‘성북’이라는 단어에서 처음 무엇을 떠올릴까?

누군가는 교과서에서 접한 김광섭(1906-1977)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를, 또 누군가는 “네, 성북동입니다”라는 극중 가사 도우미분의 전화 멘트와 함께 부자 동네를 생각해 내지 싶다. 성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북악산, 북한산, 혜화문, 정릉, 길상사, 대사관저, 심우장, 선잠단지, 간송미술관, 우리옛돌박물관 등을 꼽을 것이며, 이보다 한 층 더 깊숙이 성북을 아는 이들, 즉 성북에 살고 있거나 이곳에서 벌어지는 ‘무언가들(something)’에 얽여 본 사람들은 성북 바로 아래 소박한 모습을 간직한 북정마을, 정말로 많은 ‘예술가-주민’, 넘치는 문화에

술축제, 그리고 미술을 즐길 수 있는 크고 작은 갤러리들과 성북구립미술관, 성북예술창작터 등을 자연스레 열거하는 나름의 전문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인들’의 이름이다

김광섭, 김소진, 박경리, 박완서, 신경림, 신동엽, 이육사, 이태준, 조지훈, 최순우, 한용운, 황현산... 눈을 의심하겠지만, 이들 모두는 우리가 익히 알고 널리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성북의 문인들로서,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보문동, 돈암동 등에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이어간 이들이다. 성북동은 문인뿐 아니라 연극인과 미술가 등 다양한 예술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 조선시대 왕자들도 성 너머 바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쳐지는 이곳에 별장을 짓고 공부를 하거나 문인과 화가들이 머물 곳을 마련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 전통이 현재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하겠다. 성북은 대체 하늘에 어떤 감동을 주고 복을 받았길래 이처럼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역사문화예술의 넘치는 보물창고가 되었을까? ‘성북은 거대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수사를 성북 스스로 지어 부르고 있다 해도 여기에 그 누가 쉽게 토를 달 수 있을까?

좋은 것은 나누고 알려야 한다

보화(寶貨)가 차고 넘치는 경우, 지독한 자린고비거나 자폐적 성향을 지니지 있지 않고서야 일부라도 함께 나누고 또 자랑하게 마련일 것이다. 달란트(재능)를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행위라고 성경도 알려준다. 좋은 것은 더 좋도록 개발·계발하고 널리 알리고 같이 즐겨야 한다. 나누고 알리는 마음이 설사 상당량 자기애에 기반 하더라도, 나누고 알리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선하게 작동되게 마련이며, 무한 긍정으로 바라볼 당위 또한 충분하다고 본다. 어느 지역과도 쉽사리 비교하기 어려운 성북의 값진 자원들을 채굴하여 알리고, 지역민은 물



론 더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향유하도록 고민하는 성북문화재단 역시, 그러한 책무를 감사한 마음으로 이행해 가고 있다.

특히 문인들의 이름을 호명해 냈을 때, 그 가치를 알리는 것에 대한 고민은 ‘성북 문인사 기획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문학과와의 만남은 매체 특성상 유독 개별화되며(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문인들의 문학혼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 어쩔 수 없이 묻혀 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그 속에 담긴 우리들의 기억, 감동, 상상들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불 지피고, 또 그로인해 어떤 가치를 찾을지에 대한 질문들이 필요하며, 그 질문들을 전시라는 그릇에 담아보고자 한 것이다.

성북 문인사 기획전은 책이 아닌 ‘전시’로 접하게 되는 문인의 세계다 “여러 물품을 한 곳에 벌여 놓고 보여주는 것”이 전시(展示)의 사전적 정의로서,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보면 언제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책의 매체적 특성과 전시의 특성은 상반된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은 원시시대 무용, 음악과 하나였던 노래에서 분리된 시에서 출발했지만, 그 덩어리 속에도 미술은 없었다.

하지만 전시는 단지 예술작품뿐 아니라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책이나 편지 따위를 펴서 보이는 것” 또한 전시의 의미에 포함되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실상, 문학과 예술은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이며, 문학과 미술의 ‘애정관계’는 이미 빅토르 위고, 보들레르, 괴테, 톨스토이 같은 대문호들이 문인임과 동시에 호평 받던 실력의 화가이기도 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의 문학과 예술 공통의 운동 혹은 사조였다는 사실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학과와의 조응에 있어서 미술 뿐 아니라 예술 전 분야가 동등한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결국 새로운 ‘경험 방식’의 제안이다

1년에 한 번씩 한 명의 성북 문인을 조명하고 전시로 엮는 <성북 문인사 기획전>은 도서관 사서, 큐레이터, 예술가들의 만남에 의해 꾸려지며, 각종 자료들을 잘 모아 분류하고 유리관에 넣거나 테이블 위에 제시하는 방식을 벗어나 새롭게 흥미로운 제안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첫 시작이었던 2015년 신경림 시인의 전시 ‘사진관집 이층’에서는 특히 문인들의 교류 거점이었던 음악다방 ‘르네상스’를 연극적 장치로서 재구성했으며, 민중 시인으로서의 신경림에 초점을 맞춘 스톤 김 작가의 사진, 박재동 화백과 함께 한 북 콘서트 등을 통해 문학과 예술의 접점을 보여주었다. 이듬해 조지훈 시인의 전시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에서는 지조 있는 선비를 형상화한 바위 형태의 목조 구조물과 시의 숲을 표현한 시가 적힌 각목 기둥들, 시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서면’을 안무로 풀어낸 박나훈의 안무 영상, 시 ‘백접’에 곡을 붙여 정가로 표현한 김시율(곡)과 안정아(노래)의 공연 영상, 조지훈의 내면세계와 가족들의 모습을 그린 정진화 작가의 회화 등을 선보였다.

〈성북 문인사 기획전〉의 첫해와 다음해를 시인들의 전시로 구성했다면, 3회째인 2017년도 전시 ‘밤이 선생이다’는 황현산 비평가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비평 장르를 어떻게 전시로 구현할 것인가’와 더불어 ‘대중적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지역기반의 전시 공간’이라는 입장을 절충하는 것이 과제였다. 우선, 불문학자이자 비평가, 교수의 직함으로 불리던 그의 특별했던 인간적 측면을 주목했다. 고로 ‘비평가의 서가’는 자유로운 라운지 개념이 되길 바랐고, 책이 놓이는 탁자이자 동시에 편히 앉아서 책을 읽고 영상을 관람하는 의자로 기능하는 계단 구조물을 1층에 구현했다.

황현산의 서가 일부를 재현한 책꽂이, 사회, 문학, 예술 세 파트로 나뉜 아카이빙 테이블, 보들레르의 상형시 등에 기반한 유승호 작가의 회화와 설치작품, 그의 박호은 작가의 설치작품, 정재완 디자이너의 텍스트 디자인, 스톤 김의 사진, 인터뷰와 목포 기행을 담은 장영원의 영상 등이 전시되었다. 그리고 〈성북 문인사 기획전〉 첫 회부터 현재까지 이 모든 시각화 과정 속에는 전시디자인으로 함께 한 홍장오작가의 각별한 재능과 헌신이 있었다.



올해는 소설가 박완서를 만나게 된다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이 노년에 이르러 자연주의로 돌아서는 것과 달리, 눈 감는 순간까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모순에 저항한 현재 진행형 박완서. 그녀가 이번 〈성북 문인사 기획전〉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에 화들짝 반기며 짹짹 뛰는 수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건 내게도 놀라운 경험이다. 지식이 많건 적건, 몸을 담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공통적으로 그녀에게 열광한다. 그러나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기에 숨어있는 조용한 팬덤이라는 모순된 수사가 떠오른다. 어쨌서, 작고한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녀의 이름에 아이처럼 반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 또 그녀가 아직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은지,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여성으로서 6.25를 정면으로 관통한 기억을 부릅떠 응시하고 그것을 아물 새 없도록 계속 들쭉서가며 현재에 꺼내 놓기를 반복한 박완서. 그러나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살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쟁 속에 계속해서 존

재하는 박완서. 방대한 양의 작품과 진행형인 담론들 속에 우리는 숨죽여 긴장할 수 밖에 없으며, 그녀를 쉽게 단정 짓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녀와 같이 호홉해 보고, 운이 좋은 순간순간 나란히 걷게 되는 그런 작업이 될 것이다.

책이 아닌 전시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감각하고 사유하게 될 박완서는 어떤 경험으로 다가올지 상상하고 12월에 전시장(성북예술창작터)을 찾는 재미는 어떨까?

결국 상상으로 모두가 이어지는 만남의 경험

문학과 예술의 만남이 전시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과연 낯선 경험일까? 작가가 읽을 만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모든 것을 잘 집대성해야 한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감각적이고 조형적인 결과물을 위해서도 언어 및 언어화가 어떤 방식으로건 필요하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자유로이 넘나들어야 한다. 문학과 예술의 만남은 무척 보편타당하며, 무궁무진한 조합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숙명적 만남이라 확신한다. ‘언어로 구조화된 것’과 ‘예술언어로 표현된 것’. ‘얼핏 대립항처럼 보이는 이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문인사전은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성북 문인사 기획전〉을 통한 새로운 경험 방식의 제안을 통해, 독자·관람객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감각의 자극을 받게 되고, 자의적인 독해와 자기만의 상상으로만 채우던 세계를 벗어나 새로운 생각과 감정들을 펼쳐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고 상상하는 사람들과 어느 순간 만나 하나가 된다. 문인의 상상, 예술가의 상상, 그리고 관람자의 상상. 공동의 상상이 만드는 세계. 더 좋은 세계를 그려보는 꿈에서 함께 만나 일체감을 맛보는 짜릿한 순간을 부여받는다. 잊지 못할 순간의 선물이다. 다가오는 12월은 〈성북 문인사 기획전: 박완서 편〉

과 함께, 같은 꿈을 꾸는 이들을 만나 보길 바란다. ㉸

〈성북 문인사 기획전4: 박완서편〉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 2019년 1월 22일(화)

오프닝 : 2018년 12월 13일(목)

장소 : 성북예술창작터(성북로 23)

-

김소원은 성북예술창작터 큐레이터다. 동시대 미술을 더 가까이 호홉하려는 가운데 작가들과의 교류 및 미술비평을 지속하고 있으며, ‘발견하고’, ‘이어주는’ 일에 보다 큰 기쁨을 느낀다. 연령제한을 없앴과 동시에 더 나은 연계 프로그램 고안을 통해 더 생동감 있는 성북의 예술 환경조성을 고민하는 ‘성북 N 작가공모’, 문학과 예술의 짜릿한 만남을 통해 성북의 훌륭한 문인들을 소개하는 〈성북 문인사 기획전〉 등의 프로젝트에 주력하며 성북의 끝없는 매력과 가능성을 알리고 있다. 주변이 함께 웃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믿으며, 성북에서 그런 경험이 쌓여가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고 있다.



우리 동네 NGO NPO

구민과 걸음을 함께 하는 성북미술협회

김성진

2016년 8월 5일 혜화아트센터에서 성북미술협회(이하 성북미협) 창립전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20일 3회 정기전을 가졌다. 조선시대부터 현대미술의 거장인 김환기, 이쾌대, 변관식, 장우성, 이중섭, 권진규 등 많은 예술인들의 자취가 있는 성북구의 미술협회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늦게 조직되었지만 빠르게 구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최근 성북미협의 행보가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고 있다.

성북미협은 창립부터 성북구 관내의 미술인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에서 더 나아가 회원들의 작품 활동을 구민들과 나누고 싶어 했다. 창

립부터 이어진 구민들과의 미술적 교류에 대한 고민이 모여 지난 6월 3회 정기전에서 예술적 나눔의 실천을 볼 수 있었다.

정기전이 열리는 성북예술가압장 마당과 전시 기간 중 성북동 일대에서 열린 성북동 야행에 참여하면서 구민의 다양한 미술 체험전을 마련했다.

만해 한용운의 시를 ‘벼루, 먹, 화선지, 붓으로 필사해보기’ 체험을 통해 성북구의 역사 속 인물을 새겨볼 수 있었고, 해외 유명 작가의 현대 미술 작품을 응용한 장식물 만들기를 통해 현대 미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왔는지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세라믹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고 유약을 바르는 도자기 체험을 통해 공예의 즐거움을 느껴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잭슨폴록의 페인팅 기법을 이용한 예술체험은 혼자서가 아닌 친구들과 같이 그리고 따로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해 주었다. 이 외에도 벽화 액자, 팝아티스트의 작품을 스텐실 기법을 이용한 에코백,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페이스페인팅과 캐리커처 등 체험할 것이 무척 다채로운 행사였다.

전시장을 방문해 준 관람객분들께 잊지 못할 체험을 통해 성북미협을 알리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성북미협을 통해 구민들에게 미술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였다. 관람객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비슷한 평가가 이어졌다.

‘지하철 역,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전시가 있어서 접근성이 좋았다’, ‘오픈 기간과 시간이 길어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산책 겸 나와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저녁시간을 보냈다’, ‘가까운 곳의 전시로 여러 번 와서 보기도 하고 체험도 골고루 할 수 있었다’, ‘가족들과 왔을 때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미술 체험이 다양했다’ 등등. 실제로 여러 번 전시장을 찾은 가족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비전공자로서 미적 체험에

대해 긍정적인 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구민과 함께 하는 성북미협이 또 하나 애정을 쏟는 일이 있다.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장소가 많이 남아있는 성북구에서 선인들을 기억하고 후대에게 알리는 통로가 되는 일이다.

지난해에 이어 2회를 맞는 학생 조선 왕릉 미술대전이 있다. 조선 왕릉이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권에 걸쳐 있고,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미술대회를 통해 그 의미와 역사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정릉이 동네 이름인줄 알았는데 태조의 부인 능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 대회를 통해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좋았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다. 성북미협은 관공서와 함께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데 노력하며, 특히 많은 구민들에게 그 의미를 전하는 가교의 역할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대회 또한 보다 넓은 지역에서 참여하면서 즐거움도 더 컸다.

‘조선왕릉 미술대전’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대상을 위한 것이 라면, 성북구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또 다른 활동으로 타 미협과의 교류가 있다. 타 지역 미협과의 교류에서 성북미협이 주최가 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성북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면서 문화해설가의 설명을 듣고, 먼저 예술가의 길을 가신 분들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했던 타 미협 회원들도 뜻깊은 행사였음을 말하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기를 희망했다.

성북을 알리고 구민과 함께 걸음을 맞추어 나가길 바라는 성북미협에는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는 회원들이 많다. 성북미협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회원들과 더불어 40~50대 회원들이 발로 뛰고 있

다. 아직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어렵겠지만 앞으로 20~30대 젊은 회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 2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울려 미술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새롭게 배워나갈 수 있는 열린 성북미협으로 나아갈 것이다. 

-

김성진은 성북미술협회에서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성북미술협회는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작업 활동을 하는 작가들의 모임으로 2016년 제1회 정기전으로 출발했다. 2018년 제3회 정기전부터 작가 개인의 활동뿐만 아니라 성북구민과 함께 미술적 체험을 나누기 위한 기획과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동네 아트살롱

호탕한 웃음, 끊임없는 열정

권호성 연출가

취재 | 장영철, 차정미

현장기록 | 김기민

성북동은 대학로와 가까워서 연극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난 권호성 연출가는 블루사이공, 들풀,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서편제 등 연극과 뮤지컬을 넘나드는 연출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상임연출이자 공연 제작사인 '쇼앤라이프'의 대표입니다. 성북동에 살고 있는 그를 만나 주민으로서 연극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인터뷰 전날이 그가 연출한 과천축제의 마지막 날이라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았을까 내심 걱정도 되었지만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주었습니다.

* 이 인터뷰는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회 박진하 편집위원, 극단 더듬 차지성 대표의 질문을 모아 진행했습니다.

장영철(이하 장):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편집장을 맡게 된 장영철입니다.

차정미(이하 차): 운영과 편집을 맡고 있는 차정미입니다.

권호성(이하 권): 반갑습니다. 연출가 권호성입니다.

차: 언제부터 성북동에 사셨는지 궁금해요.

권: 대학로에서 일을 하면서 명륜동, 성북동에 살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성북동과 인연을 맺게 된 건 1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당시 닭볶음탕으로 유명했던(지금은 사라진) 성너머집 가기 전 오른쪽 부근에 살았는데 산속에 있는 지인의 집이었어요. 한눈에 보고 반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 이후 5년 전쯤에 수연산방 골목 위쪽으로 동지를 틀고 있다가 재작년 말에 그 건물 차고를 리모델링해서 연극 연습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름도 지었지요. '하늘땅 별당(別堂)'. 특별할 '별'자에 집 '당'자를 써서 '특별한 집'이라는 뜻으로.

장: 뮤지컬 서편제를 마치고 배우들과 함께 창과 소리를 하며 즐겁게 보내는 광경은 영화 속 장면 같았다고 디미방 박진하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처럼 성북동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권: 아, 네! 뮤지컬 서편제를 연습하다 디미방에서 회식을 했었어요. 막

걸리 마시다가 흥이 오르면 저절로 소리가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막걸리 몇 잔이 돌면 바로 소리판이 열리죠.

성북동에서는 자주 파티가 열려요. 제가 속한 모임 중에 ‘성북동 모임’이 있는데 연극인, 음악인, 춤꾼, 회사원, 디자이너, 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매우 재밌는 모임이 있어요. 어제 과천 축제할 때도 그 친구들이 역시 다 몰려 와서 함께 축제를 즐기고 왔죠.

차 : 성북동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권 : 성북동 연습실 앞에 비아와트라고 하는 가죽 공방이 있어요.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가 만든 곳인데 제품의 퀄리티가 정말 명품이에요. 동네 가게니까 거기를 기웃기웃하다가 차 한 잔 마시면서 알게 되었죠. 그러다 제 작품에 초대를 하고 공연 뒤풀이도 함께 하면서 제 지인들과 비아와트 지인들이 합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아와트 대표인 이경림 씨는 성북초등학교 나오고 오랫동안 이곳에서 자란 성북동 토박이예요.

장 : 잘 됐네요. 다음 기사소재가 하나 나왔네요.(웃음)

차 : 공연들 중에는 블루사이공, 들풀, 서편제 같은 한국적인 소재와 역사적인 소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권 :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연극에 대한 관심도 컸고요. 그런 성향 때문에 역사적 소재를 많이 활용하게 되었죠. ‘들풀’은 제가 연극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작품이에요. 20대 초반부터 동학사상에

심취했었고 이런 훌륭한 사상이 교과서에서 한 줄로 폼하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대사 한 줄 한 줄은 다 드라마 소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무대에 올려보고 싶었어요.

장 : 많은 작품과 대극장 공연 같은 규모가 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던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권 : 연극은 기록예술이 아니라 소멸예술이에요. 연극이라는 것은 관객과 약속을 거는 거잖아요. 전통 마당놀이극을 보면 작대기 하나가 칼도 되고 뱀도 되고 모든 게 다 될 수 있지요. 요즘 연극들은 이런 연극성을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요.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기 보다는 관객의 상상력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작품에도 도움이 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 : 뮤지컬과 정극을 넘나드는 연출로 인정받고 계신데 어느 쪽이 더 재밌나요?

권 : 연극할 땐 연극이 재밌고 뮤지컬 할 땐 뮤지컬이 재밌어요. 또 한편으론 연극할 땐 뮤지컬하고 싶고 뮤지컬 할 땐 연극하고 싶고. 연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작업이에요. 연극은 배우와 만나서 작업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힘들어요. 그에 반면 뮤지컬은 테이블 작업에서 완성되는 게 많아서 배우를 만나기 직전에 하는 작업이 고통스럽죠.

그러다보니 연극을 뮤지컬처럼 만들고 뮤지컬은 연극처럼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극장주의 뮤지컬, 다시 말해 서편제 같은 마당놀이적 뮤지컬을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가고 싶어요. 이젠 아까 말씀드린 저예산 공연과도 밀접하고요.

장: 후배 연극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권: 제가 연극 제작을 하면서 크게 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민 가버릴까? 할 정도로 충격을 크게 받았고 심지어 잠적하고 싶더라고요. 결국 계속 하게 됐던 힘은 친구들, 동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공법을 택했어요. 기다려줘라, 반드시 갚겠다 하고 결국 몇 년에 걸쳐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연출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하나 세웠어요. 절대 제작은 안한다, 하더라도 서편제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그러다보니 연극성을 찾게 되고 시적 언어를 찾게 되었죠.

장: 매년 작품을 만드시는데 높은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작품 아이디어와 이를 추진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얻는지 궁금합니다.

권: 연출로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 누구보다 많은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제 원칙이에요. 결정할 수 있는 건 그 때 바로 결정하자. 스트레스는 가능한 빨리 배출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좋은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농담하고 길길거리는 그 시간이 좋아요. 성북동 친구들 하고요.

장: 많은 연극인들이 대학로의 젠트리피케이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성북동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권: 성북동도 너무 비싸져서 후배들도 하나 둘씩 떠나더라고요. 안타깝죠. 저절로 모여든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 특히 젊은 예술가들을 품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북동에서 연극 국제 페스티벌도 할 수 있다고 봐요. 프랑스 아비뇽 국제연극제도 동네 골목, 옥상, 가게, 이런 데서 공연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성북동이야말로 서울 최고의 보물이죠.

내년이면 연출한지 30주년이 돼요. 기념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책을 출간할까 해요. 30년간 작품 프로그램에 실렸던 연출 이야기만 모아도 책 한 권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 작업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수필처럼 썼어요. 개인적으로 뜻깊은 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장: 도서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책에 관심이 많아요. 책이 나오게 되면 꼭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호성 연출가는 과천 축제 때 직접 기획하고 만들었다며 ‘과천 막걸리’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맛보았는데요. 축제 환호성처럼 톡 쏘는 청량감 있는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곧장 뮤지컬 〈메밀꽃 필 무렵〉 연습 현장인 춘천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쉴 새 없는 행보에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 넘치는 모습, 그의 시원하고 유쾌한 말솜씨가 인상에 남는 인터뷰였습니다. 

-

권호성은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상임 연출이자 공연제작사인 ‘쇼엔라이프’의 대표이다. 1997년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대상, 2003년 올해의 베스트 연극상, 2013년 뮤지컬 부문 국회사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동네 이슈

나는 동구여중 학부모입니다

김경아

학부모라는 이름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오래전 많이 이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광고. 아이의 꿈과 행복보다 당장의 경쟁에서 이기기만을 바라는 부모들의 세태에 경종을 울리며 세간에 화제가 되었다.

나의 경우 학부모란 이름표를 처음 달았을 때,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 같은 심오한 고민보다는 단순히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었다. 아침잠 많은 내가 아이를 제 시간에 보낼 수 있을까? 매사에 허둥지둥 하는 내가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 줄 수 있을까? 성적은 고사하고 숙제라도 꼬

박꼬박 봐줘야 할 텐데... 무엇보다 학부모가 된다는 건 진짜 어른이 되는 것. 학교에서 도덕과 질서를 배우게 될 아이 앞에서 나는 진짜 어른 노릇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나, 일가친척 앞에서 혼인서약을 낭독할 때나,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학교라는 세상에 첫 발을 뗀 아이가 12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 그 12년 동안 엄마로서 아이의 학교생활을 잘 관리해 주어야 하는 의무. 그런 생각에 이르니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아이를 학교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도 막상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한 학기쯤 지날 무렵 자의반 타의반으로 희미해져갔다. 생애 첫 담임 선생님이었던 나이 지긋하신 여자 선생님은 천둥벌거숭이 같은 아들을 한없이 너그러운 할머니의 마음으로 보듬어주셨고, 담임 선생님과 첫 상담에서 떨고 있던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교육이라는 게 가르치고 키운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고 자란답니다. 부모는 단지 아이가 자연스럽게 크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적당히 떨어져서 지켜봐주면 돼요”

먹구름이 가득 낀 하늘에서 한줄기 빛이 떨어져 내 머리 위를 비추는 느낌. 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는 학교에 맡기고 학교가 요구하는 것, 예컨대 녹색어머니나 급식봉사 같은 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부담을 훌훌 털어버렸다.

이런 생각은 딸아이가 동구여중에 입학하면서 더욱 굳어졌다. 중2병과 사춘기를 조심하라는 선배들의 충고가 무색하게 딸아이는 중학생이 되자 어느 때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다. 노후한 시설이나 가파른 언덕

길은 문제되지 않았다. 초등학생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 머리가 굽어지며 친구와 선후배, 선생님과 관계에서 오는 배움과 경험이 나날이 두터워지고 있음이 느껴졌다. 부모로서 별로 한 게 없는데도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예전 그 할머니 담임 선생님의 금과옥조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혁신학교인 동구여중의 학교문화도 큰 몫을 했다. 아이들의 자치를 중요시하고 선생님들의 열정도 남달랐다. 하지만, 혁신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성북동으로 이사를 결정한 스스로에게 잘했다며 뿌듯해하고 있을 즈음, 생각지도 않은 사달이 났다.

교장선생님이 없는 학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3월 2일, 그날은 신입생 입학식이자 2학년에 올라가는 딸아이의 개학날이었다. 난데없이 교장선생님이 교문 밖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셨다. ‘저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든 선생님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다. 등교하는 아이들과 입학식에 온 학부모들이 고개를 가우뚱했지만 입학식은 결국 교장선생님 없이 진행됐다.

그 후 동구여중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교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교장선생님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으며 이대로 가다간 졸업식도 교장선생님 없이 치러야 할 판이다.

그 사이, 그냥 아이를 학교에 맡기면 만사가 오케이였던 나는 ‘동구여중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모임’의 대표가 되어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어둡고 긴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 ‘당하고’ 있는 중이다.

학교의 또 다른 면을 보다

동구여중은 사립학교다. 사립 초등학교라면 몰라도 사립 중학교라는 건 학부모들에게 그다지 특별한 관심사가 아니다. 사는 곳에 따라 자동

배정되는데다 주위에 워낙 사립학교가 많아서 그저 다 같은 학교라 여길 뿐.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학교의 겉모습과 속사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비슷하지 않을까 싶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구조 속에 놓여있다. 그 구조적 차이 때문에 교사의 위상이 달라지고 교육환경에 편차가 발생한다. 재단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인사권은 교육적 가치와 사명감을 생명처럼 여기는 선생님들을 일순간 사기업의 고용인으로 전락시킨다. 흔한 말로 공무원이나 교직원을 철밥통이라 부르며 비꼬기도 하지만, 사립학교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철밥통은 어떤 부당한 상황에도 재단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나 가능한 일. 동구학원은 지난 3년간 재단의 부당처우에 항의하는 평교사를 대상으로 30여 건에 이르는 고소·고발을 했고, 교육청이 임명한 교장선생님을 해임한 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에서 두 번이나 복직판정을 내렸음에도 또 다시 직위해제를 강행했다.

법대로 돌아가는 세상, 멋대로 돌아가는 사학

학부모들은 그저 어리둥절했다. ‘세상에 교장 없는 학교가 어딴어’, ‘교장선생님이 갑자기 병이 난 것도 아니고 교육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못 돌아오는 거지?’ 라는 단순한 질문이 학부모들을 교육청에 찾아가게 하고, 정치인을 만나게 하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넣게 했다. 지난 8월 200여 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이 교육청과 시의회를 찾아 학교정상화를 호소했고, 성북동 일대에 100여 개의 현수막을 걸어 언론에도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놀라운 건 모든 게 ‘법’, 법대로 진행된 일이라는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도 바꾸는 세상에 수십 년간 기득권 사학을 지켜주고 있는 그 요상한 사학법이란 것 때문에 이 모든 비정상상의 상황이 법적인

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된다.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시험, 급식, 채용, 폭력, 성문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비위 행위가 사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을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조차 무력화시키는 것이 사학의 자율성과 인사권을 보장하는 사학법에서 비롯됐다. 반대로 이런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항의하는 학교 구성원들을 소외시키고 쫓아내는 것도 사학법에서 비롯한다. 이쯤 되면 사학법은 그저 사악한 법일 뿐 교육을 위한 법이 아니다. 철밥통이란 표현에는 어떤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의 신분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도 있을 테지만, 문제의 사학법은 종잇장처럼 찌그러지고 굴욕적인 철밥통을 강요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누구의 것인가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국민’이라 답할 수 있는 사회라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는 말에도 쉽사리 동의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 학생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운영예산의 90퍼센트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는 개인이 설립한 학교라 할지라도 교육이라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공적 기관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동구학원은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친일파인 김활란이 설립했지만 실제 재단 출연금은 지역의 학부모와 독지가들이 만든 후원회의 비중이 훨씬 컸다고 하니 그야말로 지역사회의 자산이라 해야 마땅하다. 그런 이유로 동구학원은 더 더욱 학생,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학교란 그저 교실에서 일정한 시간에 수업을 하고, 급식을 먹고, 정해진 활동을 하면 끝나는 곳이 아니다. 이곳은 10대의 청소년과 2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부대끼는 작은 사회다. 아이들은 3년을, 선생님들은 30년 이상을 이곳에서 지내며 성장한다. 학

교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다. 학교공동체가 병들었을 때 아픈 곳을 치료하고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구성원들의 몫이다.

그래서 지금의 동구학원 사태는 법적 당사자 몇 사람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사태로 인해 상처받았을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보듬고 혁신학교로서 지역사회와 맺은 관계를 단단히 지켜가면서 모두를 위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처음 학부모들이 학교정상화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을 때, 누군가는 지금껏 사학분쟁에서 학부모가 나선 사례는 없었다며 반색했고 누군가는 거대한 사학재단을 상대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우려했다.

하지만 동구여중 학부모들은 기꺼이 바위로 돌진하는 계란이 되기로 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몇 사람의 힘으로 바위보다 단단한 사학의 벽을 일시에 깰 수는 없지만 작은, 정말 아주 작은 틈이라도 낼 수 있다면 그 작은 균열로 인해 언젠가는 거대한 장벽도 무너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다행인 것은 끝이 안 보이는 막막한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며 이 상황을 단지 누군가와와의 싸움이 아니라 좋은 학교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는 우정 어린 엄마들이 있다는 점이다.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내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모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고민하는 진정한 학부모로 성장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라는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아이를 학교에 맡겼다는 말 뒤에 숨어서 학교 일에 무심했던 나 자신부터 반성하며 학교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학부모들이 있는 한 언젠가는 학교도 정상화의 길을 찾지 않

을까 한다.

학창시절의 추억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다. 

-
김경아는 대학졸업 후 상경하여 20년째 서울살이 중이다. 성북구 안에서만 일곱 번 이사를 하고 2년 전 성북동으로 옮겨 온 도시 유목민. 아침 새소리와 노을 지는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성북동에 오래 살고 싶다. 13년간의 직장생활을 끝으로 경력단절여성이 되자마자 때마침 마을공동체 붐을 타 활동가 세계에 발들었다. 이런저런 마을활동을 한지 7년째가 되지만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정체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주민 기고

성북동 <햇살내리는 어린이집>

윤혜정

성북동의 높은 언덕을 올라와 작은 골목에 접어들면 우리 어린이집이 보인다. 이름 그대로 햇살이 잘 내리는 어린이집. 나는 햇살이 잘 드는 이 골목에서 태어나 자랐다. 이제는 여기서 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일도 하고 있다. 그래서 <햇살내리는 어린이집>은 나에게 더 특별한 곳이다.

내 아이를 위해 문을 열게 된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개원한 이유는 첫째 아이 때문이었다. 엄마 마음이 다 똑같듯 나도 아이를 낳으니 내 아이에게 만큼은 누구보다 까탈스러운 엄마



였고, 눈에 드는 어린이집을 찾아 여러 동네를 헤맸다. 그러다가 ‘에이, 내가 차리고 말지.’하고 조금은 충동적으로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번 마음먹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 덕에 일사천리로 <햇살내리는 어린이집>은 문을 열게 되었다. 어린이집의 기본이 되는 보육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가구 하나, 놀잇감 하나 내 손길 안 닿은 곳 없이 정성들여 준비했다. 그렇게 첫째와 첫째 또래의 성북동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집은 첫 해를 맞았다.

아이들이 아이다운 곳

첫 아이를 낳고, ‘아이다움’이라는 이름의 육아품앗이 모임을 만들었었다. 단순히 엄마들이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것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었으면 했다.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과 놀이 활동을 했다. 품앗이모임의 이름이었던 ‘아이다움’은 ‘아름다움(심미감), 이야기, 다양성, 움직임’의 줄임말이다. 이후 ‘아이다움’은 <햇살내리는 어린이집>의 보육철학이 되었다.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아이답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했다. 아

이들에게는 밥 잘 먹고, 잘 자는 것만큼 잘 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아이가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했다.

어린이집은 조용할 날이 없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친구와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아이들에게 말은 하지만, 매번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면 그게 아이일까 싶기도 하다.(나는 아직도 때때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아직 걸음마를 떼지도 못한 아이들이 입소하여 서로 놀잇감을 뺏고 빼앗기다가, 조금 자라면 친구가 놀이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같이 놀이하고 양보까지 하고 있다. 나의 첫째 아이도 느린 아이였기 때문에, 나의 육아 모토는 ‘기다림’이다. 아이들은 때가 되면 다 한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성장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에 맞춰 기회를 마련해주고 충분히 격려해 주면 그만이다. 성장시간표에 맞지 않는 자극은 무의미하다. <햇살내리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아이다운, 그래서 아이도 어른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란다.

성북동의 유일한 가정 어린이집

성북동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집이 많이 없는 편이다.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고, 유동인구가 적어 보육수요가 높지 않은 영향을 받은 듯하다. 대부분의 가정 어린이집은 아파트 1층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어린이집은 빌라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아담하다. 면적에 대비해 정원이 정해지므로 우리 어린이집 정원은 흔치 않은 13명이다. 처음엔 너무 작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지금은 내가 우리 어린이집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4살 이하의 어린 영아들 열 셋에 교직원 다섯 명이 모여 있다 보니 우리 반, 옆 반, 우리 선생님, 옆 반 선생님 이런 구분도 없다. 다 우리 반 아이들이고, 우리 선생님이다.

개원 준비를 할 때부터 실외공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성북동에는 아파트단지가 없다 보니 이용할 수 있는 인근 놀이터도 없었다. 고민 끝에 빌라 1층의 넓은 화단을 정리해 작은 모래놀이터와 신체활동 공간을 만들었다.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아이들 13명이 놀기에는 맞춤이다. 날씨가 좋을 때는 이 공간에서 햇볕을 쬐며 아이들과 책을 읽고, 여름에는 간이풀장을 펼쳐 물놀이를 하기도 한다. 실외놀이터에서 나오면 성북동 천혜의 환경이 펼쳐진다. 성북동에는 유흥가가 없어 소음이 적다. 건다 보면 들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새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까지 아이들에게는 이야깃거리가 된다.

어린이집 바로 옆에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친정집이 있다. 친정집은 2013년도에 서울미래유산-윤중식 가옥으로 지정되었고, 마을잡지 지난 호에 소개되었던 소나무아트스튜디오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친정집 마당에는 첫째의 봉봉카와 미끄럼틀이 있어, 어린이집 아이들과 종종 산책을 다녀오곤 한다. 봄, 가을이 되면 돛자리 하나 들고

소풍을 간다. (옆어지면 코 닿을 곳이지만) 김밥까지 함께하면 더할 나위가 없다. 큰 소나무 아래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의 어린 시절도 생각나곤 한다.

어른도 아이도 행복한 어린이집

올해 여름에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았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아이들. 그 아이들의 마음에 난 상처를 보는 것은 우리 어른들에게 깊은 슬픔과 분노를 자아냈다.

스물여섯의 어린 나이에 내 첫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개원하며, 아픈 아이 없이 다치는 아이 없이 평화로운 어린이집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그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좋은 교사들이 중요했고, 지금도 교사 임용에 가장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어린이집으로 꾸리기 위해 5년 동안 부단히 노력했다. 얼마 전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선생님이 “일을 시작할 때는 이맘때쯤까지 일하고 그만두려 계획했었는데, 요즘은 어린이집이 너무 재미있어서 못 그만두겠어요.”하고 우스갯소리를 하셨다. 가볍게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그 후로 며칠간 그 말이 생각나 기분이 좋았다.

교사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교사와 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 아이들도 어린이집에서 더욱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요즘 대부분 사용하는 스마트폰 알림장도 있지만, 등·하원시간에 부모와 교사가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한다.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엄마입장에서 육아고충을 나누다보니 어느새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넘어 좋은 친구가 된 인연도 많이 생겼다. 내가 어린이집을 하며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다.



어린이집이 조용할 날 없이 시끌벅적한 아이들 목소리로 하루하루 채워지는걸 보면 내가 바라던 어린이집으로 꾸려지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아이도, 교사도, 부모도 행복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꾸준히 만들어가려 한다.

지금은 5개월이 되어가는 둘째아이와 함께 매일 출근을 한다. 아마 첫째아이처럼 <햇살내리는 어린이집>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며 밝은 아이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어떤 친구들과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 커갈지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

윤혜정은 성북동에서 태어나 지금껏 성북동에 살고 있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방송연예학과 아동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연세대학교 유진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첫 아이 출산 후, 2014년도에 성북동에 <햇살내리는 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여러분! 12호가 나왔습니다.

장영철

올 여름은 일년에 몇 번 틀지 않던 에어컨을 한 달간 매일 사용했을 만큼 무더웠습니다. 그렇게 11호 마을잡지 발행을 마치고 찾아온 여름의 폭염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상상,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에 대한 불안을 시금치를 데쳐낸 듯 숨을 죽여와 오직 여름을 잘 보내는 것에 집중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어찌 건달까 싶던 여름을 의도치 않게 잘 보내고 나니 가로수 작은 그들의 고마움도 알겠고 어찌다 스치듯 흐르는 바람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나름 여름을 잘 보내고 다시 12호 잡지를 준비하면서 보니, 이전에 가졌던 긴장감과 걱정은 이미 사라졌고 나의 부족함에서 오는 불안도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는 기다리는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이야기>는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보이지 않지만 겹겹이 얹힌 인연과 관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편집회의를 거쳐 편집방향을 잡고 글과 이야기를 남겨주실 분들을 찾고 나면 잡지 제작이 많은 부분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고자들에게 원고를 부탁하게 되면 너무나 감사히 그리고 기쁘게 응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기고자분들이 성북동을 단순히 거주지나 경제활동의 거점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북동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을 각자의 감성으로 충분히 느끼고 있으며 퇴색되지 않도록 지키려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6년의 기간 동안 멈추지 않고 발행된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이야기가 앞으로도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는 기다리는 역할 나눔이 계속될 것 같아 기분이 편안해 집니다.

마을잡지를 왜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는 기다린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기다리던 누군가는 만들게 되고 만들던 누군가는 기다리게 되는 단순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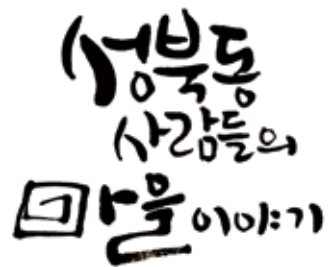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12란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지는 12호 마을잡지 출간회에서 모두 뵙길 희망합니다. 

-

장영철은 본지 편집위원으로 올해 편집위원장을 맡았다. 오래 전부터 성북동에 애정을 갖고 공부 모임을 열기도 했으며, 성북동의 문화와 주민들의 삶에 관심이 많다. 휴일이면 성북동의 골목 곳곳을 둘러보는 것을 재미로 느끼는 진정한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 희망제작소 주관 성북동마을학교 참여자 중심으로 모임 조직 (2013. 2~5월)
- 단체 설립 (2013. 5월)
-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2013~2014) : 마을잡지 창간호 간행, 마을 사진전 개최, 마을학교 운영, 마을여행 진행
-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주민공동체 희망사업 (2014) : 마을잡지 4호 특집호 간행
-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2014~현재) : 마을잡지 2~3호, 5~11호 간행
- 성북구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민관협력회의의 참여자 (2016~현재)
-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 (2016. 9월~현재)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사무처 운영담당 겸 운영위원회 간사 (2017. 6월~현재)
-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 추진단 컨소시엄 참여 (2017. 7월~현재)

성 북 동 천 귀하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마을 잡지 12호 <비매품>

2018년 11월 27일 발행

상임 편집위원 | 김기민 김철우 박진하 장영철 차정미 최성수
비상임 편집위원 | 김현주
교정·교열 | 최나현

디자인 | 17717 김선문

펴낸곳 | 성북동천
기획·편집 |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회
지원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동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12-6, 1층 동네공간
seongbukdong.town@gmail.com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070. 8871. 5998